

KIA 시범경기 1위 ... 달라진 타이거즈엔 '네가지'가 있다



24일 오후 대구 시민야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에서 KIA가 삼성에 4대 3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경기종료 후 KIA 선수들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1 최희섭 부상탈출 '타선의 완성' 특급 라인업 피해갈 곳이 없다
- 2 양현종 양현종 부활 좌완 가뭄 해갈 칼날 제구력 되찾아 볼넷 실종
- 3 김주찬 막강해진 테이블세터 기동력야구 자신감 넘쳐
- 4 김선빈 안정된 수비 강해진 방패 물샷 틈 없는 내·외야 '탄탄'



'호랑이 군단'이 공·수·주의 업그레이드로 2013시즌 시범경기 1위에 올랐다. KIA 타이거즈가 24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범경기 최종전에서 4-3 역전승을 거뒀다.

1회초 김주찬의 3루타와 김원섭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린 KIA는 2회 신종길의 솔로포로 2-0을 만들었다. 2회말 삼성의 선두타자 최형우의 홈런에 이어, 4회에는 박석민과 채태인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2-3 역전. 하지만 KIA는 홍재호의 3루타로 시작된 6회 이용규와 김원섭의 적시타로 승부를 뒤집으며 시범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역전승을 연출했다. 앞선 23일 삼성전에서 6-2 승리를 거두며 이미 1위를 확정지었던 KIA의 2013시즌 시범경기 성적은 9승2패. KIA가 시범경기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2008년 이후 5년 만이다.

◇부상 탈출 성공 잘나가는 KIA의 가장 큰 힘은 타선이다. 마무리훈련과 스프링캠프에서 계속된 고강도 훈련으로 체력을 채운 KIA는 부상으로 인한 침체기를 타선의 힘으로 극복했다. 특히 지난해 수비에서 자존심을 구겼던 안치홍이 안정된 수비로 내야의 중심에 섰

워지면서 이범호·나지완·최희섭·김상현·안치홍 등으로 중심타선 구성이 막강해졌다. 김주찬의 가세와 함께 테이블 세터의 힘도 강화됐다. 이용규·김주찬을 기본으로 시범경기에서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준 신종길과 김선빈의 2번 타자 조합도 가능하다. 테이블 세터와 같은 하위타선의 구축도 가능

고, 김선빈의 호수비 열전도 계속됐다. 물샷 틈 없는 내야, 상황에 따라 공격형과 수비형으로 진용을 짤 수 있는 외야까지 방패까지 탄탄하다. 안정된 수비는 투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수비 안정화로 인한 자신감 상승은 타격에서의 여유도 더해졌다.

임준섭의 배장투도 KIA 마운드에 숨통을 틔워줬다. 마지막 등판이었던 24일 삼성 최형우에게 홈런을 내쳤고, 볼넷도 4개를 기록하는 등 4이닝 3실점으로 주춤했지만, 위력 있는 볼넷과 자신감 있는 피칭으로 KIA 마운드의 셋별로 떠오르며 시범경기 신바람에 힘을 보탤다.

공·수·주 모두 업그레이드 9승 2패 5년만에 1위 복귀

◇양현종 부활, 좌완 가뭄의 단비 KIA는 에이스 윤석민·김진우가 빠진 가운데에서도 7승을 수확했다. 선발로 나선 양현종은 더운 날씨에 투구 속구와 어깨상태가 좋지 않은 윤석민과 김진우의 공백을 대변한 임준섭의 선발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양현종은 22일 LG와의 시범경기에서 6이닝 3피안타 1실점의 패투를 선보이며 올 시즌 리허설을 끝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제구에서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6회까지 단 하나의 볼넷도 내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날 양현종의 필살기인 직구의 위력이 살아나면서 탈삼진은 9개나 뽑아냈다.

◇기동력으로 더해진 공격력 KIA 선동열 감독은 올 시즌 팀 200도루를 언급할 정도로 기동력을 강조했다. 한발 더 뛰며 상대를 더 흔들겠다는 계산이다. 이용규·김주찬·김선빈·안치홍·김선빈 등의 빠른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기동력 야구에 대한 자신감과 있고, 시범경기에서 그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었다. 24일 KIA의 첫 득점도 기동력이 가미된 점수였다. 1사에서 2번 김주찬은 우중간 안타로 출루에 성공했다. 2루에 안착한 김주찬은 빠른 발로 3루까지 내달리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김원섭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면서 KIA는 손쉽게 선취점을 냈다. 홈에서도 적극적이다. 3-3으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간 6회, 2루에 있던 이용규는 김원섭의 우전안타 때 재치있게 홈에 파고들면서 결승 득점을 만들었다. 22일 LG와의 경기에서는 김선빈이 과감한 홈 캐드와 함께 점수를 만들어내는 등 기동력이 공격의 파괴력을 더하고 있다.

◇기동력으로 더해진 공격력 KIA 선동열 감독은 올 시즌 팀 200도루를 언급할 정도로 기동력을 강조했다. 한발 더 뛰며 상대를 더 흔들겠다는 계산이다. 이용규·김주찬·김선빈·안치홍·김선빈 등의 빠른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기동력 야구에 대한 자신감과 있고, 시범경기에서 그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었다. 24일 KIA의 첫 득점도 기동력이 가미된 점수였다. 1사에서 2번 김주찬은 우중간 안타로 출루에 성공했다. 2루에 안착한 김주찬은 빠른 발로 3루까지 내달리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김원섭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면서 KIA는 손쉽게 선취점을 냈다. 홈에서도 적극적이다. 3-3으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간 6회, 2루에 있던 이용규는 김원섭의 우전안타 때 재치있게 홈에 파고들면서 결승 득점을 만들었다. 22일 LG와의 경기에서는 김선빈이 과감한 홈 캐드와 함께 점수를 만들어내는 등 기동력이 공격의 파괴력을 더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고 1회 5점...군산상고에 11-4 콜드승

고교야구 주말리그

광주일고가 군산상고의 상승세를 꺾고 2연승을 기록했다. 광주일고는 지난 23일 군산 월명구장에서 열린 군산상고와의 경기에서 기동력과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11-4, 7회 콜드승을 거뒀다. 이날 경기는 공·수의 안정적인 전력을 과시하는 '전통의 강호' 광주일고와 주말리그 1주차 경기에서 2승을 챙긴 군산상고의 전라권 빅매치. 하지만 광주일고가 1회에만 5점을 뽑아내며 쉽게 승기를 잡았다. 톱타자 채지선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연달아 도루에 성공하며 군산상고의 배터리를 흔들었다. 1사 1-3루에서 4번 정기훈의 3루타로 2점을 만든 광주일고는 노민석과 송동욱의 연속 2루타까지 더해져 대거 5점을 뽑는데 성공했다. 광주일고는 8-4로 앞선 7회 무사 만루에서 터진 채지선의 3루타로 콜드게임승을 안

성했다. 두 경기 연속 승부차기 패를 기록했던 동성고는 신생팀 정음 인상고에게 진땀을 흘렸다. 3-0으로 앞선 5회, 좌익수 실책으로 흔들린 동성고가 윤태영의 적시타와 페스트 볼로 동점을 허용했다. 6회에는 인상고 김범진의 3루타로 3-5 역전이 됐다. 9회말 동성고 톱타자 이재무가 투수 앞 땅볼 때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시도했지만 아쉬운 아웃 판정. 정규홍의 삼진으로 투아웃, 3번 이태훈이 중전안타로 마지막 볼씨를 살렸다. 김태선의 연속 안타에 이어 김민혁의 타구가 우익수 뒤로 빠지면서 동점주자까지 홈을 밟았다. 2사 3루에서 박고훈의 내야안타가 나오면서 동성고가 극적으로 올 시즌 첫 승을 기록했다. 화순고도 전주고와의 승부에서 9회초 4점을 뽑는데 성공하며 6-5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군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4일 광주 영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3 광주광역시장배 전국 9인제 배구대회' 8강전에서 광주 송정 서초등학교 교직원팀의 공격을 송우초등학교 교직원팀이 블로킹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男 해남배구협·女 씬클럽 우승

광주시장배 전국 9인제 배구대회

'2013 광주광역시장배 전국 9인제 배구대회'가 24일 상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시 배구협회(회장 고광삼)와 광주시 9인제 배구연맹(회장 박길재)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순수아마추어 72개팀 1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남녀 클럽부·교직원부·자모부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그동안 갖고 있던 기량을 겨뤘다. 이번 대회는 23~24일 이틀간 광주 영주 종합체육관을 비롯해 빛고을 체육관, 금부 초등학교 체육관 등 8개 보조경기장에서 진행됐다. 대회 결승에서 남자클럽 1부 해남배구협회는 부산 동그라미를 2-1로, 남자클럽 2부 순천클럽은 북구클럽을 2-0으로 각각 제압하고 우승컵을 안았다. 여자클럽부 씬클럽은 우리 배구클럽을 2-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교직원부 광주 송정초등학교는 유안초등

화교를 2-1로, 자모부 금구초등학교는 유촌 초등학교를 2-1로, 장년부 문정클럽도 그린 비를 2-1로 각각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남자클럽 1부 순산철(해남배구협회), 남자클럽 2부 김대식(순천클럽), 여자클럽부 고정학(씬클럽), 자모부 김정희(금구초), 교직원부 김규철(송정초), 장년부 김성용(문정클럽) 선수가 각 부문별 최우수 선수(MVP)의 영예를 안았다. 심판상은 김건주·김정희씨가 수상했다. 배구 활성화와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남자클럽부 27개팀, 여자클럽부 12개팀, 교직원부 12개팀, 자모부 9개팀이 참가했다. 광주시배구협회 고광삼 회장은 "광주에 만 130여 개의 9인제 배구팀이 활동할 정도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생활체육으로 정착해 있다"면서 "앞으로 전국체전에 9인제 배구 종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 출발 왕복 셔틀 운행 안내

광주 - 완도 - 제주항 - 완도 - 광주

셔틀버스출발 : 06:00 광천 터미널 내
셔틀버스도착 : 완도 버스터미널까지만 운행 됨
패 속 선 : 완도 출발 09:00~10:40
제주 출발 17:50~19:30
소 요 시 간 : 1시간 40분
패속선+셔틀버스요금
편도 37,000원(한만세포함요금, 추가요금 없음)
체코 : 탄제 불개, 합인을 및 합인 대상자들 문의바람

광주 - 목포 - 제주항 - 목포 - 광주

셔틀버스출발 : 06:40분 광천동 터미널 건너편 e-편한세상 앞
셔틀버스도착 : 목포 국제항 여객선 터미널 앞
패 속 선 : 목포 출발 09:00~13:20
제주 출발 17:00~21:20
소 요 시 간 : 4시간 20분
크루즈+셔틀버스요금
편도 30,000원(한만세포함요금, 추가요금 없음)
체코 : 탄제 불개, 합인을 및 합인 대상자들 문의바람

첫날부터 짝~찬 신나는 제주 여행
광주 출도착 제주도 2박 3일 매일 출발

완도 쾌속선 169,000원~
목포 크루즈 155,000원~

-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수목원테마파크-트리아트, 얼음박물관, 5D영상관
- 2일자 오설록, 코끼리랜드, 카멜리아힐 동백정원, 석부자테마파크, 올레7코스, 새연교+새섬, 쇠소깍
- 3일자 교래리 삼나무숲길,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 허브동산, 에코랜드 또는 선녀와 나무꾼, 해녀촌, 친환경농수산물매장

포함 사항:광주-완도, 목포 왕복셔틀버스(신착신왕복선)비료, TAX, 일정내에 모든 관광지 식사(완도-중식3회,목포-중식2회,목포-중식2회,목포-중식2회) 숙박(일박호텔 5~6인실)
불포함사항:기타도입(1인 10,000원)자유식당(완도-완도항)수송
현지 직불관공 : 상반선 유류권(17,500원)공공기관(완도항)등(15,000원) 추가비용:금요일출발 2만원 토요일출발 1만원 2인실(1인실) 3인실